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n Impact on the Relationship among Elderly'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김종식,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

Jong-Sik Kim(imkim@puts.ac.kr), Wang-Kyu Lim(wklim@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 요인으로는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및 학습지향형의 세 유형을, 그리고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로는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에 네 요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의 6개 경로대학에서 60세 이상 노인들 30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으며,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노인 | 평생교육참여동기 | 교육만족도 | 생활만족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hree types of participation motivation(goal-orientation, activity-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and four components of educational satisfaction(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environment, instructor quality and educational result)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307 elderly people attending in 6 community colleges for the aged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employ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main data analysis method. This study found that participation motivation in lifelong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that educational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 keyword : | Elderly | Lifelong Education | Educational Satisfaction | Quality of Life | Religious Life |

I. 서론

현대사회는 생명공학과 같은 과학의 발달과 공중위생 및 건강증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발표한 “201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률을 기준으로 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오는 2045~2050년에는 88.4세까지 늘어나 홍콩에 이어 세계 제2위 국가로 경쟁 뛰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95~2100년에는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5.5세로 홍콩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장수국에 등극한다는 게 유엔의 전망이다[1].

이러한 인간의 평균수명연장이 곧 축복으로 연결되는 아닐 것이다.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 수명연장은 고통의 연장이 된다는 점에서 평균수명연장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노인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야기된다는 점이다. 개인적 차원의 노인문제로는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인의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인간관계 및 세대 간 갈등, 노년기의 여유시간관리, 심리사회적인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 등이 야기되며, 사회적 차원의 노인문제로는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와 경제활동의 저하, 의료 및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이 야기될 수 있다[2].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평균수명의 급격한 연장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노인평생교육이다. 노인평생교육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은 개인이 일생에서 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 즉 노년기가 연장됨을 의미하며, 이 시기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노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노인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9년 8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2000년 3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4].

노인평생학습 현황을 살펴보면, 54세-64세 기준으로 2011년에는 전체 참여율이 21.0%이고, 2012년에는 전체 참여율이 31.5%로 점점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5]. 그리고 노인관련 연구들은 노인평생교육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이와 같이 현시점에서 노인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노인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며, 본 연구에서도 노인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기존연구들과의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노인평생교육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7-9], 평생교육 참여 동기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들 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노인문제해결에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참여 동기

평생교육은 삶(life)과 평생(life-long) 및 교육을 의미한다. Lengrand[11]는 평생교육을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이라고 하였고, Dave[12]는 평생교육을 개인적·사회적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비

형식적 학습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정관(2006)은 평생교육을 노인이 자기발달 단계에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발달과정에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은 인간의 종합적인 성장과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에게 평생교육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노인 평생교육은 노인에게 교육의 주제로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둘째, 젊은 세대가 노후를 설계하고 노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셋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 젊은 세대에게 노화에 관한 자연스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13].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 이론으로 Houle[14]의 모형, Miller[15]의 장-힘모형, McClusky[16]의 잉여이론 등이 있다. Houle[14]의 모형은 모든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참여동기를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Miller[15]의 장-힘 모형은 생애초기 단계에는 평생교육이 물리적인 생존, 안전 및 애정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활동의 분리에 대한 보완으로 평생교육참여는 현실세계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는 이론이다. 또한 McClusky[16]의 잉여이론은 성인기에 필요한 에너지량과 사용 가능한 에너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Houle[14]의 모형에 기반 하여 평생교육참여 동기유형을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그리고 학습지향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목표지향형 참여동기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습득, 직업상의 향상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지닌 유형을 말하고, 활동지향형 참여동기는 학습에 참여하는 행위나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을 가리키며, 학습지향형 참여동기는 지식이나 배움 그리고 지적호기심 그 자체를 좋아하는 유형을 말한다. 본 이론은 현실점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의 대안으로 노인평생교육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평생교육의 질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연구자들이 적용가

능성이 높은 이론이다.

2. 교육만족도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만족은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상태의 정도를 의미한다.

Astin[17]은 교육만족도를 학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Campbell[18]은 교육만족도를 일정한 교육목표나 욕구의 달성을 통한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유지수(2011)는 교육만족도를 학습자 각 개인의 학습자체 또는 주위의 환경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가치, 그리고 태도나 신념 등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보고 있다[19].

대표적인 교육만족도 관련 이론으로 Maslow[20]의 욕구충족이론, Herzberg[21]의 위생동기이론, 학습평가 측정 모델인 Kricpatrick[22]의 4단계 모델 등이 있다. Maslow[20]의 욕구충족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1단계의 생리적 욕구, 2단계의 안전욕구, 3단계의 애정 및 소속 욕구, 4단계의 존경욕구, 5단계의 자아실현욕구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Herzberg[21]의 위생동기이론은 만족과 불만족을 단일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차원으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서로 다르다고 본다.

또한 Kricpatrick[22]의 4단계 모형은 교육만족도를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자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교수, 교육과정 및 수업, 학교생활, 학교시설(Astin)[17], 교과조직, 교수-학습, 도서관, 전산실습실, 학생서비스, 학교환경, 학생회 활동(Harvey)[23],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 전공만족도와 진로지원,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졸업한 후 대학과의 관계 등이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육만족도 구성요소인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교육결과의 네 차원을 교육만족도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교육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환경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여러 환경들이 잘 갖추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강사의 질은 강사가 교과목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을 뜻하며, 교육결과는 교과목 수강 후 자기개발 또는 그 분야의 지식 및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평생교육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Nease[25]는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고, 학습동기는 다시 교육만족도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Ruben[26]은 평생교육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으로 강사의 질, 행정서비스의 질, 교육의 질이 개선될수록 학습자들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명수·송선희(2012)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생학습 참여 동기유형인 학습지향형과 목표지향형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27]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권인탁(2013)은 평생학습참여 동기 유형인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의 세 유형 모두 평생학습프로그램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8].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평생교육참여 동기(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는 교육만족도(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교육결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 한 사회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사

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29].

생활만족도는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 조건과 이들이 경험하는 안녕복지에 대한 주관적 조건을 동등하게 강조한 개념이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30].

주관적 측면에서의 생활만족도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는데, 인지적 차원의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자신의 기대, 욕구, 희망 또는 다른 준거집단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생활만족도인 반면에 정서적 차원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가리킨다[31][32].

Shin & Johnson[33]은 생활만족도를 각 개인의 필요, 요구,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동시에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Lawton[34]은 생활만족도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며 이루는 하나의 체계에 대해 인간내면의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법칙인 외적 기준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또한 Campbell[35]은 생활만족도를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년기 생활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는 활동이론, 쾌락이론, 성공적 노화이론 등이 있다. 활동이론은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은 남은 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활동이론은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본다[36][37].

쾌락이론(Hedonism Theory)은 경험요건(experience requirement)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관적인 생활경험이 생활만족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38]. 즉, 평생교육

참여 등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행복 등과 같은 생활경험을 얻게 되면 이는 생활만족도 증대된다고 본다.

성공적 노화이론은 성공적 노후는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에의 숙달, 인생의 목표 및 개인적 성장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노년기 생활만족도는 평생교육 등과 같은 사회활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이들 6개 차원이 갖추어지는 정도에 비례한다고 본다[39].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itner & Leitner[40]는 여가활동교육에 참여하고 그리고 만족하였을 때 노후의 생활에 대해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rkid & Martin[41]은 교육과 같은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삼덕[6]은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교수자 만족도, 학습자 지원서비스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전명수(2012)의 연구는 평생교육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10]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교육만족도(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교육결과)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연구모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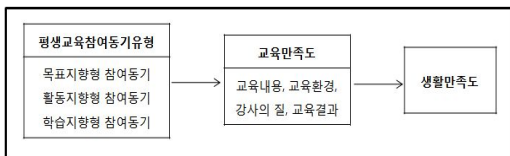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수도권 소재 노인 경로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우선 수도권 소재 노인 경로대학들의 명단을 확보한 후에 경로대학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본 조사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조사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이 중 6개의 경로대학이 협조의사를 표명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협조의사를 표명한 이들 6개 노인경로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각 경로대학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각 경로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6개 경로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에게 총 380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358부가 회수되어 94%의 높은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51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총 307개의 사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307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남자가 42.3%, 여자가 57.7%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6.2%, 70대가 43.9%, 80대 이상이 19.9%의 분포를 보였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38.4%, 사별이 61.6%의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6.2%, 초등학교졸이 39.1%, 중졸이 24.8%, 고졸이 21.2%, 대졸이 8.8%의 분포를 보였으며, 월소득은 없는 경우가 54.4%, 100만원미만이 25.1%, 100만원 이상이 20.5%의 비율을 보였고, 가족동거여부는 독거가 33.2%, 배우자 동거가 35.2%, 자녀나 손자녀와의 동거가 31.6%의 비율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측정 속성이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는 척도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독립변수들인 목표지향형 참여동기유형, 활동지향형 참여동기유형 및 학습지향형 참여동기유형의 세 변수는 Houle[14]가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3문항, 5문항 및 4문항을 선정하

여 측정하였다. 교육만족도의 구성요소인 교육과정,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의 네 변수는 Ruben[26]이 개발한 교육과정 척도에서 3문항, 교육환경 척도에서 6문항, 강사의 질 척도에서 4문항 그리고 교육결과 척도에서 5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최성재[42]가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에서 3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될 이론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정말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측정도구들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 우선 외생변수(독립변수)와 내생변수(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 각각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수 결정기준으로는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들의 수를 기준으로 삼는 카이저규칙(Kaiser rule)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방법인 배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의 경우 .50을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표 1. 외생변수 측정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목표지향1	.258	.183	.743
목표지향2	.188	.116	.887
목표지향3	.212	.157	.812
활동지향1	.007	.559	.458
활동지향2	.265	.701	.346
활동지향3	.263	.836	.140
활동지향4	.435	.702	.196
활동지향5	.223	.816	.127
학습지향1	.743	.189	.227
학습지향2	.833	.363	.130
학습지향3	.850	.241	.202
학습지향4	.835	.207	.180
고유값	6.007	1.525	1.198
%분산	50.055	12.711	9.982
%누적	50.055	62.767	72.749

우선 외생변수(독립변수)들인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고유값이 1.0이 넘는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며, 이 4개의 요인들이 설명하는 총누적분산 비율은 72.749%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을 보면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및 학습지향형 참여동기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이 모두 .50 이상의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해당 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고 있어 측정도구들이 모두 적절한 집중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내생변수(매개변수 및 종속변수)들인 교육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21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가 제시된 [표 2]를 보면 고유값이 1.0을 넘는 요인이 5개 추출되었으며, 이 5개의 요인들이 설명하는 총분산 비율은 70.706%이었다. 요인부하량을 보면,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교육결과 및 생활만족도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이 모두 .50 이상의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부하되고 있어 측정도구들이 모두 적절한 집중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내생변수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교육내용1	.206	.181	.807	.132	.160
교육내용2	.231	.136	.816	.066	.123
교육내용3	.256	.281	.715	.246	.058
교육환경1	.184	.770	.174	.135	.188
교육환경2	.209	.795	.082	.063	.235
교육환경3	.149	.694	.216	.110	.294
교육환경4	.318	.761	.237	.090	.096
교육환경5	.302	.721	.125	.131	.274
교육환경6	.349	.766	.129	.115	.071
강사의질1	.520	.482	.407	.066	.068
강사의질2	.534	.394	.407	.034	.078
강사의질3	.643	.418	.285	.037	.065
강사의질4	.546	.375	.397	.067	.140
교육결과1	.213	.196	.151	.131	.784
교육결과2	.123	.121	.097	.192	.831
교육결과3	.129	.283	.163	.146	.782
교육결과4	.231	.244	.214	.145	.728
교육결과5	.058	.191	.168	.078	.725
생활만족1	.189	.152	.246	.731	.116
생활만족2	.192	.092	-.040	.778	.085
생활만족3	.021	.048	.151	.818	.025
고유값	9.567	1.657	1.348	1.230	1.046
%분산	45.559	7.889	6.418	5.858	4.981
%누적	45.559	53.448	59.866	65.725	70.706

측정도구의 신뢰도 평가에는 Cronbach's α 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0 이상이면 수용가능, 0.70 이상이면 만족, 0.80 이상이면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42]. 각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제시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도계수가 목표지향은 .843, 활동지향은 .853, 학습지향은 .899, 교육만족도의 네 차원인 교육내용은 .848, 교육환경은 .847, 강사의 질은 .896, 교육결과는 .907,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737로서 모두 .70을 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각 척도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합의 평균을 계산하여 각 변수의 척도값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모든 이론적 변수들의 값은 1에서 5의 범위를 갖는다.

표 3. 척도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척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목표지향형	3	3.228	.911	.843
활동지향형	5	3.561	.832	.853
학습지향형	4	3.273	.960	.899
교육내용	3	3.744	.831	.848
교육환경	6	4.020	.705	.847
강사의 질	4	3.903	.796	.896
교육결과	5	3.897	.742	.907
교육만족도	18	3.892	.654	.940
생활만족도	3	3.721	.841	.737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우선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추정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의 검증에 위한 주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은 변수들간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 추정에 앞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 부분으로 분해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간의 선형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비선형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변수들의 변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비선형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 이 넘으면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IV. 분석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분석에 포함된 이론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우선 노인평생교육참여동기 변수들과 교육만족도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면,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의 세 변수 모두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으며, 네 차원을 종합한 교육만족도 변수와도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 다음으로 교육만족도 변수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면,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 만족도의 네 변수와 이들 네 차원을 종합한 교육만족도 변수 모두 생활만족도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

표 4. 변수간 상관관계

구분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교육결과	교육만족
목표지향								
활동지향	.537**							
학습지향	.467**	.605**						
종교생활	.238**	.302**	.296**					
교육내용	.345**	.320**	.309**					
교육환경	.266**	.326**	.312**	.552**				
강사의 질	.331**	.309**	.358**	.616**	.684**			
교육결과	.245**	.281**	.316**	.533**	.645**	.729**		
교육만족	.353**	.364**	.382**	.808**	.839**	.894**	.852**	
생활만족	.259**	.249**	.258**	.356**	.354**	.321**	.363**	.363**

* p<.05, ** p<.01

2. 가설검증

2.1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및 학습지향형 참여동기의 세 변수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의 네 차원의 종합인 교육만족도에 대해서 세 유형의 참여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 참여동기의 세 유형 모두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만족도의 각 차원에 대한 세 유형의 참여동기의 영향을 보면, 우선 교육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 참여동기의 세 유형 모두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환경 만족도에 대해서도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 참여동기의 세 유형 모두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강사의 질 만족도에 대해서는 세 유형의 참여동기 중에서 목표지향과 학습지향 참여동기의 두 유형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활동지향 참여동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결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 참여동기의 세 유형 모두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회귀 계수	t값	유의 확률
교육만족도	목표지향	.189**	3.025	.002
	활동지향	.129*	1.848	.033
	학습지향	.229**	3.435	.001
교육 내용	목표지향	.227**	3.555	.000
	활동지향	.125*	1.747	.041
	학습지향	.155*	2.265	.012
교육 환경	목표지향	.110*	1.707	.045
	활동지향	.175**	2.414	.008
	학습지향	.152*	2.193	.015
강사의 질	목표지향	.193**	3.030	.002
	활동지향	.053	.746	.228
	학습지향	.239**	3.508	.001
교육 결과	목표지향	.133*	2.046	.021
	활동지향	.210**	3.233	.001
	학습지향	.232**	3.323	.001

* p<.05, ** p<.01

2.2 교육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교육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의 네 차원의 종합인 교육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교육만족도의 구성 차원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 차원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환경 및 교육결과 만족도의 세 변수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강사의 질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육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 계수	t값	유의확률
생활만족도	교육만족도	.404**	7.680	.000
생활만족도	교육내용	.221**	3.195	.001
	교육환경	.135*	1.735	.042
	강사의 질	.073	-.828	.204
	교육결과	.208**	2.585	.005

* p<.05, **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는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요인들이 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문헌들과도 일치한다[25-28].

첫째,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과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별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지향형 참여동기유형과 강사의 질 만족도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및 학습지향형의 세 참여동기 유형 모두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활동지향형 참여동기유형은 강사의 질 만족도 간의 관계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활동지향형 참여동기유형이 강사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 동기유형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교육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발견들과도 일치한다 [6][10][41][42].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들의 영향을 보면, 교육내용, 교육환경, 및 교육결과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강사의 질 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질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들이 대부분 4-50대 연령층이어서 노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어디에 있든,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 제고를 통해서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참여동기를 유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제공 및 제도의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강사의 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사의 풀이나 강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폭넓은 강사가 마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인 반면에 이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노인들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40-50대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노인교육생들이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인세대의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이 따른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경로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들 간의 인과적 영향을 탐구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측정지표로 자아효능감, 정서적안정감 등의 긍정적 측면에서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였으나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불안,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측정지표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평생교육 참여동기유형과 교육만족도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경제상태, 인성 특성, 생산적 활동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민일보 인터넷기사(2013.6.14.) 『한국,2095년 세계 최장수국 될 것』, [http://www.news,Kukinews.com](http://www.news.Kukinews.com)
- [2] 허성호, 김종대,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제31권, 제2호, pp.417-418, 2011.
- [3]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6.
- [4] 최은수,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2010.
- [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2011, 2012.
- [6] 김삼덕,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이 성공적 노화의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7] 김미영, *노인교육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8] 최미애, *노인대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흥시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9] 권오선, 노인대학프로그램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전명수,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 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1] P. Lengrand, *An introduction of lifelong education*, London: The UNESCO Press, 1975.
- [12] R. Dave,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New York: Pergamon Press, 1976.
- [13] 기영화, 노인교육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7.
- [14] C. O. Houle, *The inquiring mind*,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 [15] H. L. Miller, *Participation of adults in education: A force field analysis*, Boston: Center the study of liberal education for adults, Boston Univ, 1967.
- [16] H. Y. McClusky, *Education: Background the 1971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1971.
- [17] A. Astin,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3.
- [18] A. Campbell,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levels and standards of liv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57, No.4, 1996.
- [19] 유지수,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학습자의 참여 동기, 교육기관 기대, 교육만족도가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0]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54.
- [21] F. Herzberg, M. Bernard, and B. B. Snyderman, *The motivation to work*, Wiley, New York, 1959.
- [22] D. L. Krikpatrick, Techniques for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raining Director's Journal*, 1959.
- [23] L. Harvey, Student satisfaction approach, [http://www/use.ac.uk/crq](http://www.use.ac.uk/crq), 2002.
- [24] 문희주, 오덕만, 정명화, 최인근, 김정환, 임승규, 전문대학 교육진반에 관한 학생만족도 조사연구,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연구, 제2005-2호, 2005.
- [25] A. A. Nease, *Do motives matters?: An examination of reasons for attending training and their influence on training effectiveness*, Ph.D. diss, Rice University, 2000.
- [26] B. D. Ruben, *Quality I higher education*,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5.
- [27] 전명수, 송선희,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8권, pp.438-448, 2012.
- [28] 권인탁, 대학평생교육프로그램유형에 따른 성인 학습자의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제11권, 제3호, pp.139-164, 2013.
- [29] 김상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서울: 나남출판사, 1997.
- [30]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8권, 제1호, pp.150-169, 1998.
- [31]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542-575, 1984.
- [32] E. Suh, E. Diener, and F. Fujita,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ending revisions, 1995.
- [33] D. C. Shin and D. M. Johnson,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pp.475-492, 1978.
- [34] M. P. Lawton, *A multidimensional view of quality of life in frail Elders*, Inc, 1991.
- [35] A.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1988.

- [36] R. J. Havighurst, B. L. Neugarten, and S. S. Tobin,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Neugarten, B. L.(Ed).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37] R. J. Havighurst,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38] T. Scanlon, *Value, desire, and quality of life*. In M. Nussbaum & A. Sen(Eds.),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1993.
- [39] C. D. Ryff, "In the Eye of Beholder: Views of Psychology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Psychology and Aging*, Vol.4, pp.195-210, 1989.
- [40] M. J. Leitner and S. F. Leitner, "*Leisure in later life*," Binghamton, N.Y. : Haworth Press, 1985.
- [41] K. M. Markid and H. W. Martin,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Vol.34, pp.86-93, 1979.
- [42]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논총*, 제49권, pp.233-258, 1986.
- [43]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8.

임 왕 규(Wang-Kyu Lim)

정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사회적기업, 고령친화산업, 기술경영, 경영공학 등

저 자 소 개

김 종 식(Jong-Sik Kim)

정회원



▪ 1986년 3월 ~ 1988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평생교육, 심리상담, 리더십